전두환 고향 합천 청년들 5·18묘지 참배

“전씨 사죄하는 날까지 오월정신 전파 앞장”

화순JC와 자매결연 인연
합천JC 회원 35명 방문
“사과 없는 재판모습 안타까워
내년 40주년 기념식도 참석”

25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합천 청년들이 고(故) 조사천씨의 묘역 앞에서 묘지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5월 영령들을 추모하고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법정에 출석한 전두환씨가 광주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전씨가)합천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합천에선 자부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전씨가 사죄를 하는 그날까지, 합청 청년인 우리가 앞장서서 오월 정신을 전파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장내 스피커에서는 ‘합천JC(한국청년회의소)회원분들이 참배를 왔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합천은 전두환씨의 고향이다.

전씨의 고향 후배들이 왔다는 소식에 5·18묘지를 찾은 광주시민과 참배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추모탑으로 쏠렸다. 이날은 5·18휘호 대회를 맞아 2000명이 넘은 인파가 5·18묘지에 머물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묘지를 방문한 합천 청년 35명은 이날 참배안내 방송을 시작으로 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오월 영령을 기렸다.

이들은 1·2묘역을 둘러보며 김경철·김안부·조사천·윤상원 등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당시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유영봉안소로 이동해 영령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추모를 이어갔다.

이후 5·18추모관을 찾은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구묘역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독일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념정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번 합천 청년들의 광주방문은 화순JC 강재홍(38)회장의 묘역참배 제안으로 이뤄졌다.

전남과 경남에 각각 위치한 합천과 화순은 지역감정이 극으로 달해있던 1980년대 청년단체인 JC회장단의 자매결연 추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광주를 처음 찾은 김란규(37) 합천JC 회장은 “묘역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이 전율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은 합천 청년들이 5·18민중항쟁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보고, 이해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듯 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주에 오기전 우스개 소리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우리도 물세례를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 막상 오니 광주시민들이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번 참배에 앞서 혹시나 정치적 이슈화가 될까봐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의견을 물으니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까지 고령의 일부 합천 주민은 전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같은 청년 세대는 자부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특히 전씨가 광주 법정 출석 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 후배로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5·18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된 회원들과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합천과 경남에서 5·18진실과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폭염에…차 안 낚시용 배터리 자연발화로 불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차량에 있던 낚시용 배터리가 자연발화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대원은 승합차 운전석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차량 앞 유리를 깨고 불을 껐다.

감식결과, 불은 차량 내부에 충전하기 위해 놓아둔 낚시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30도를 웃도는 한낮 폭염에 차량 내부 온도가 치솟으면서 배터리가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택시승차 방해된다”…차량에 불 지른 50대 검거

택시승차에 방해가 된다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낸 행인이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일반 건조물 등에의 방화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40분께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에 나란히 주차된 1t 트럭과 카이런 승용차 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인근 상점 주인이 소화기로 재빨리 진화했으나, 두 차량 모두 타이어와 엔진룸, 차체 일부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혼잣말을 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택시타기가 어려워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수 구하라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광주출신 걸그룹 가수인 구하라(28)씨가 26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새벽 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 A씨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구씨는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정상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에 혼자 있던 구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택으로 찾아가 쓰러져 있는 구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연합뉴스

장흥서 버스-승용차 충돌…1명 사망·3명 부상

지난 24일 오전 8시 15분께 장흥군 안양면 한 교차로에서 군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길 옆으로 넘어지면서 승객 A(90)씨가 숨지고, 나머지 승객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승용차 운전자 B(27)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교차로는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경찰은 두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연인과 시비 붙은 80대 이웃 살해…7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연인과 시비가 붙은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1시 35분께 해남군에 있는 연인 A(여)씨의 집 안방에서 욕설을 하고 연인 A씨의 어깨를 때린 이웃 B(당시 88세)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가벼운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박씨의 행위로만 B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박씨가 치매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변호사 구속영장 반려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팀장과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6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이 신청한 광주청 김모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을 반려했다. 검찰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A변호사에 대한 영장신청도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 등 혐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다른 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 체포됐지만, 체포기한 48시간을 넘겨 석방됐다. 경찰은 김 팀장이 수사 상황을 A변호사 측에 알려줬고, 이 과정에서 다시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거래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김 팀장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태료 체납에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번호판 만들어 불법 부착

쌍나팔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빼앗기자 불법으로 만들어 부착한 뒤, 차량을 운행한 50대가 경찰서행.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58)씨는 17건 총 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상습체납해 이미 지난 3월 14일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해 차량을 운행했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애초 김씨는 “번호판을 영치 당한 사실이 없다”고 태연하게 진술했다가 경찰이 조회 결과를 제시하고나서야 범행을 인정.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7451	1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79, 104동 2층 202호 [연산동,목포백련지구천년가아파트] 84.9885㎡	아파트	230,000,000 230,000,000	
2018타경 8577	1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63-7, 204동 11층 1106호 [한라2차사원임대아파트] 59.75㎡	아파트	42,100,000 42,100,000	
2018타경 8638	1	목포시 원산주택로30, 101동 12층 1204호 [산정동,소암아파트] 59.64㎡	아파트	81,000,000 81,000,000	
2018타경 9013	1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60, 111동7층 703호[남악신도시경남아너스빌]84.9902㎡	아파트	231,000,000 231,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 54075	1	목포시 지적로 40 95.4㎡[갑구12번9분의1 염규성지분전부]	단독주택	25,819,100 25,819,1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단층통로및 창고2.87㎡,단층 방0.92㎡,2층주택 5.48㎡]및조경수[소나무등약70주] 포함,농지취득자 격증명요
		목포시 대양동 207-1 11㎡[목록1과지분동일]	전		
		동소 207-2 195㎡[목록1과지분동일]	전		
		동소 207 262㎡[목록1과지분동일]	대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 7925	1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939 289평[현재'묵전'상태이며,전신주소재함]	전	6,876,000 6,87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8타경 8164	1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211-1 2301㎡	전	308,334,000 308,33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8타경 8379	1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539-3 2005㎡[타번지와일단지로'답'으로이용중]	답	29,874,500 29,874,5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3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649-1 538㎡	답	11,687,400 11,687,4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일단지로'답'으로이용중
		동소 649-22 368㎡	답		
	4	동소 649-3 606㎡	답	16,099,200 16,099,200	물건번호3과비고동일
		동소 649-4 642㎡	답		
2018타경 9075	1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297 1273㎡	전	47,032,000 47,032,000	일괄매각,목록3석성리298은공부상'대지'이나목록1,5석성리297,302과합쳐져'전'으로이용중
		동소 298 192㎡	대		
		동소 302 1279㎡[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9075	2	동소 297-1 238㎡[각대상아닌단층창고가존재하며,일부는'전'으로이용중임]	대	5,236,000 5,236,000	
	3	동소 299 486㎡[타필지와합쳐져'전'으로이용중임]	대	9,234,000 9,234,000	
2018타경 9198	1	목포시 죽교동 500-1 248㎡	대	50,697,000 50,697,000	일괄매각
		동소 500-7 139㎡[죽교동500-7]공부상'전'이나현황'건부지'로사용중,미등기건물들은매각대상아님]	전		
	2	동소 559-11 56㎡[현황'전'및타인소유로탐문되는주택의마당으로이용중]	대	6,328,000 6,328,000	
2018타경 53911	1	신안군 장산면 대리 107 6271㎡[목적물일부'농로[시멘트포장]'로이용중,연고미상분묘[2기]및매각대상아닌조경수소재함]	전	47,659,600 51,629,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산66 2182㎡	임야	2,094,720 2,094,720	일부는'농로'로이용중임
	3	동소 산74-1 4523㎡[갑구1번4분의1장옹식지분전부]	임야	5,314,525 5,314,525	일부에연고미상의분묘[8기]소재함
	4	동소 산18-2 16661㎡[일부'분묘'로추정되는부분있으나소재지까지출입불가능하여소재여부확인하지못함[길이없고,풀이우거짐]	임야	46,650,800 46,650,800	
2018타경 54075	2	동소 126 1301㎡[갑구16번9분의1염규성지분전부.현황전으로이용중]	답	33,410,800 33,410,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157-2 1903㎡[갑구10번9분의1염규성지분전부]	임야	12,052,080 12,052,080	현황전으로이용중
	4	동소 145-4 2175㎡[갑구10번9분의1염규성지분전부]	전	12,566,840 12,566,84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18타경 7390 2019타경 2194 [중복]	1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1-3 200㎡	대	254,402,820 254,402,8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단층보일러실4㎡,단층창고40㎡]및기계기구포함,일부기계기구[2-1[에어컨],3[농산물건조기]]소재불명
		영암군 삼호읍 난전로 120 59.07㎡ 제시외 보일러실 4㎡	주택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1-8 565㎡	대		
		영암군 삼호읍 난전로 118 198.08㎡ 제시외 창고 40㎡,기계기구목록참조	작물재배사		
2018타경 8799	1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60-4 2399.2㎡	공장용지	989,646,600 989,646,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단층창고42㎡,단층창고105㎡]및기계기구포함,일부기계기구[5[pattyoven],7[mixer],12-1[net conveyor],12-4[belt conveyor],13[포장기],14[중탕기],15[중탕기]]소재불명
		함평군 학교면 동함평산단길 34-53 [제1동] 480.32㎡ 제시외 창고 147㎡,기계기구 Mixer[교반기] 12	공장,사무실		
		동소 34-53 [제2동] 458.16㎡	공장		
		동소34-53 [제3동] 217.12㎡	냉동창고		
2018타경 9365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55-2 2579㎡	잡종지	364,665,000 364,665,000	매각대상아닌컨테이너박스1동소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6. 10.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6. 17.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문형준